

북한이탈여성들의 삶 이야기 2: 생존전략을 중심으로 한 중국생활체험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Voices II :
The Lived Experiences Focused on Survival Strategies in China

성신여자대학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교수 김태현

이화여자대학교 인간생활환경연구소

연구원 노치영

Dept. of Family Culture & Consumer Science, Sungshin Women's University

Professor : Taehyun Kim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Ewha Womans University

Researcher : Chi-young Noh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재중 북한이탈여성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맥락 |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 III. 연구방법론 및 연구방법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survival strategies in China. In this research, 13 female defectors in China were interviewed. There seemed to be 6 survival strategies in the interview. They disguised themselves as if they were *Chosunjok*; they tried to wear fashionable clothes, to mimic *Chosunjok* dialect, to speak mingling Chinese words with Korean words, and to get counterfeit ID cards. They suppressed themselves from showing their angers or resentment against Chinese who looked down on them due to their illegal status, but they would seek chances to revenge on them in the future. They have survived by getting married to Chinese, but they were reluctant to have a baby because it was not for

Corresponding Author: Taehyun Kim, Department of Family Culture & Consumer Science, Sungshin Women's University, 249-1 Dongsungdong 3-ga, Sungbuk-gu, Seoul 136-742, Korea Tel:82-2-920-7207 Fax: 82-2-928-9747 E-mail: thkim@sungshin.ac.kr

sure what their future lives are going to be like. They were alert against people around them all the time, especially against North Korean defectors, and were conscious of their competitive relationship among themselves. Finally, some of them appeared to seek routes to immigrate to South Korea, but others who didn't yet make up their minds to immigrate to South Korea had vague anticipations of North and South Korea to be reunified.

주제어(Key Words): 재중 북한이탈여성(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in China), 생존전략(survival strategies) 생활체험(lived experiences), 해석학적 현상학(Hermeneutic Phenomenology)

I. 서론

삶을 설명할 때 우리는 '전략(strategy)'이라는 용어를 종종 사용한다. '전략'은 불확실한 상황, 제한된 환경, 혹은 위기에 대처하는 의식적, 무의식적 방법들을 의미한다(Edwards & Ribbens, 1991). 개인이 사용하는 의식적 방법들은 특정 상황에 대한 개인의 이해와 통찰력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무의식적 방법들은 일견 비합리적으로 보일지라도 자신의 삶을 통제한다는 점에서 주관적 타당성과 합리성을 지닌 능동적이며 지속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략은 개인이 처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최선의 이익을 주리라고 기대하며 선택하는 방법들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전략선택의 기준은 반드시 판단근거를 충분히 제공하는 조건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가령 개인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조건에서도 충분히 전략선택은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현재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있는 북한이탈여성들의 삶에 적용해볼 수 있다. 북한여성들의 위기적 상황은 국가의 경제 붕괴와 식량배급의 와해로 인해 이미 10년 전부터 지속되어왔으며, 이에 대응하여 북한여성들은 탈북이라는 대처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위기관리체계에 돌입하였다. 그들에게 있어서 탈북은 조국에 대한 범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가족의 생존을 위한 생존전략 중 하나이다(노치영, 2002). 그러나 북한에서 그들은 굶어죽는 신체적 생존의 위기가 절대적이었던 반면, 탈북한 현지 체류국에서는 신변안전의 위협을 갖고 살아야 하는 또다른 위기적 상황에 처해진다. 사회적 변화와 위기 압력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삶에 대한 애착

이 강한 북한이탈여성들은 안전유지를 위하여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전략들을 사용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대처전략을 그들의 특수한 위기적 상황에 적합하도록 '생존전략'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약 30만명 이상의 대규모 북한이탈자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좋은 벗들, 2000) 중국에서 북한이탈여성들이 안전하게 살아남기 위하여 어떠한 생존전략들을 선택하는지를 이해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재중 북한이탈여성들의 삶의 현실과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공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I. 재중 북한이탈여성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맥락

북한이탈여성들이 중국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북한이탈자에 대한 정책과 태도, 그리고 북한이탈여성들의 생활실태에 대한 배경적 이해가 필요하다.

1. 중국의 북한이탈자에 대한 정책과 태도

난민협약상 '난민'은 정치적 난민으로 제한하여 정의되어져 왔다. 이러한 정의는 매우 협의의 정의로서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아프리카 및 아시아권의 다양한 탈출동기를 갖고 있는 대량난민사건들을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김태천, 2002). 따라서 UN난민고등판무관(UHCR)은 대규모적인 인권침해, 일반화된 폭력, 내전 등으로 인해 자신의

생명, 안전, 자유를 위협당하여 모국을 떠나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관행적으로 '난민'으로 규정하여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포괄적인 정의에 준거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북한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의하여 기본적 생존권이 박탈당했고 북한으로 돌아가면 정치범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난민'으로 규정해야 한다는데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다(김태천, 2002; 곽해룡, 2000; 윤여상, 1998; 이신화, 1997). 반면, 중국은 이미 1982년에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를 체결한 국가이면서,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는 이념상 우호적 동맹 관계를 형성하여 1960년대부터 '밀입국 범죄자 상호 인도협정'과 1980년대에 '국경지역 관리협정'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이탈자를 불법체류자로 간주하고 중국내 치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체포하여 강제송환할 수 있는 것이다. 탈북자 문제가 심각해지던 1997년 중국은 '국경관리 방해죄'라는 새 형법을 신설하여 북한이탈자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등 그들을 돕는 자국인에 대해서는 무거운 벌금과 실형을, 그리고 외국인에 대해서도 벌금과 실형, 해외추방을 선고할 수 있도록 강경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대량탈북으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 비용의 손실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혁명 1세대가 맺어온 형제적 동맹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북한의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지속시킬 수 있다는데 초점을 둔 면도 있다(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1997).

이와 같이 중국은 국제사회에서의 입지상 북한이탈자를 난민으로 인정해야 하지만, 자국의 경제 및 북한과의 외교적 전략상 난민인정불가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에 있는 북한이탈자들은 먹을 것을 해결하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신변안전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

2. 북한이탈여성의 재중 생활실태

재중 북한이탈자들의 성비에 있어서 여성이 75%인데 반해, 남성은 25%라고 보고되고 있다

(좋은 벗들, 1999). 여성 이탈자가 남성에 비해서 3배나 더 많은 이유는 북한 및 중국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부응하는 것과 북한 공산주의 의식의 내재화에 기인한다고 보여진다(박현선, 1999; Yoon, 2000). 즉 북한에서는 산업시설이 붕괴되면서 유휴 여성노동인력이 증가하였고, 탈북사실이 드러났을 때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정치심사나 사상오염 교육 및 구류 등의 처벌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시장경제화 되면서 농촌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졌고 이와 더불어 농촌총각의 결혼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도시 유흥가에서는 여성 서비스직이 발달하면서 중국 여성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값싼 북한여성들을 돈을 벌 수 있다며 중국으로 유인하는 검은 손길들이 증가하였다. 한편, 이념적으로는 북한의 온정적 가부장제 의식을 내재화한 북한 여성들이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에서 과감히 탈북을 감행하는 것이다.

탈북한 중국은 북한이탈여성들이 기대했던 만큼 안전한 곳이 아니어서 생존할 수 있는 먹을 것과 숨어서 기거할 수 있는 곳을 필요로 한다. 일부 북한이탈여성들은 외딴 농촌의 농가나 도시의 작은 음식점에서 일자리를 얻는다. 일자리를 얻는 것은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만, 신분노출에 대한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많은 북한이탈여성들은 신변불안으로 기거할 곳이 적당치 않아서 중국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생활상의 안정감을 해결하고자 한다. 통계에 따르면, 결혼형태로 거주하는 북한이탈여성들은 약 51.9%에 이른다고 한다(좋은 벗들, 1999). 이들의 결혼은 인신매매에 의한 강제결혼, 생존을 위한 자발적 혹은 준 자발적 소개혼의 형태를 띤다. 소개혼의 경우도 주로 한족 홀아비나 조선족 농촌 노총각들과의 사실혼 관계일 뿐,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탈여성들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결혼한 북한이탈여성들은 비교적 중국 남편들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북한 남자들에 비해서 여자를 많이 존중해주는 등 안정된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가정생활에서 남편이 그들을 무시하는 것, 남편의 음주문제 및 구타문제,

경제적 어려움,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 자녀교육문제 등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상 남편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아야 하며, 남편이 자신을 버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심리를 갖고 호구(신분증)문제를 해결하려는 생존과제에 직면해 있다(문숙재, 김지희, 1999).

호구문제해결을 위해 드는 비용은 북한이탈여성 당사자와 그의 가족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부담이기도 하지만, 여성이 호구가 없기 때문에 아이를 출산하더라도 계획생육위원회에 벌금을 물어야 하고¹⁾, 아이의 호구를 주지 못하여 학교에 입학시킬 수 없는 연쇄적 문제들에 직면하므로, 그들과 그들 가족은 보다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호구를 희망하는 실정이다.

이상의 재중 북한이탈여성들의 생활실태를 살펴본 바,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이탈여성들의 중국에서의 생활은 거의 기술적 차원에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중국 삶에 대한 관점과 태도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둘째, 북한이탈여성들이 현재 경험하는 중국 사회체제와의 상호작용 과정에 대하여 연구되지 않았다. 셋째, 기존 연구들이 중국에서 사는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하여 밝히고 있지만, 극도의 위기감을 느끼는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선택한 생존전략들에 대해서는 연구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질적 연구를 통하여 중국 내 북한이탈여성들의 목소리로 전해지는 생존전략을 중심으로 한 생활체험(lived experiences)들을 수집할 필요가 있다.

III. 연구방법론 및 연구방법

우리는 북한이탈여성들의 생존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 '삶'이라는 총체적 차원에서 좁혀가는 접근을 시도하였다. 총체적인 접근을 위하여 재중 북한이탈여성들의 목소리로 이야기 되어지는 그들의 삶에 대하여 그들이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아

무 선입관이나 편견 없이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 삶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을 해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해석학적 현상학의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1. 해석학적 현상학(Hermeneutic Phenomenology)

해석학적 현상학(Hermeneutic Phenomenology)은 인간의 일상적 생활세계(life world)에서의 주관적 경험을 탐구하고자 하는 질적 연구의 한 부류로서, 일상생활 세계에서 사람들의 생활체험(lived experiences)과 그들이 부여하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²⁾는 북한이탈여성들의 중국에서의 생활체험을 통해서 그들의 존재가 세상에 부여하는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우리는 북한이탈여성들의 생활체험의 줄거리를 이해하려고 하였을 뿐 아니라, 각 여성의 체험이 어디서부터 시작하였는지, 체험의 중요한 부분과 중요치 않은 부분은 무엇인지, 체험의 중요한 부분에 부여하는 의미는 무엇인지 등의 현상학적 질문들과 그에 대한 답변들을 계속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북한이탈여성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 1) 계획생육위원회는 중국의 가족계획위원회로서 산아제한 정책 시행 및 감독기관이다. 중국인은 아이를 낳으면 계획생육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호구가 없는 불법체류자인 북한이탈여성이 결혼한 사실은 이웃들이 눈치 채면서 마을단위 파출소에 그 명단이 기록된다. 파출소에서는 북한이탈여성이 불법으로 결혼해서 사는 것을 때에 따라 일정한 뇌물을 받고 묵인해버린다. 이와 같이 계획생육위원회는 파출소 단위로 기록되어 있는 주민명단에 따라 산아제한을 감독하기 때문에 북한이탈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불법신분임을 빌미로 벌금을 요구하곤 한다.
- 2)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더 이상 연구현상과 거리를 둔 객관적 위치에 서지 않고 주관적 위치에 선다. 즉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과의 상호대화를 통하여 현상의 의미구조를 이해함으로써 현상에 몰입하는 또다른 참여자가 되는 것이다.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들 간의 거리를 좁혀가는 연구과정은 현상에 대한 자료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자들은 자신을 또다른 참여자로서 동등화하여 연구에서 표현하고자 한다.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북한이탈여성들의 생활체험을 이해하는 것이 북한이탈여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여성 및 가족학자, 통일 정책이나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전문가들과 그 외의 통일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북한이탈여성들 자신에게 그 가치가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Van Manen(1997)의 제안에 따라, 우리는 북한이탈여성들의 생활체험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 1) 연구자 자신의 체험을 기술하기, 2) 관찰, 3) 인터뷰(심층면접), 4)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관련 학술연구, 편지, 신문기사, 보도물 등을 읽고 다큐멘터리 영상물을 관람하였고 북한이탈자들과 관련된 일을 하는 정보 제공자들과의 대화 등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1) 연구자 자신의 체험 기술

우리는 중국에서의 개인적 체험들을 회고해보았다. 우리는 한국인으로 한국에서 성장한 후 연구를 위하여 중국에 오게 되었고, 중국에 체류하는 것에 대한 기대나 어려움 등을 기술해 보았다. 또한 북한이탈여성들을 만나면서 갖게 되는 태도, 관찰한 것, 편견 등도 기록하였다. 북한이탈여성들에 대한 편견은 한국에서의 반공교육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들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을 갖고 있었다. 중국에 와서 만난 북한이탈주민들을 관찰한 것도 그들에 대한 편견을 더해 주었다. 그들은 불쌍하였고, 체면을 유지하고 있었고, 자신의 욕구나 느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고,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 우회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가 13명의 북한이탈여성들을 만나는 과정은 마치 첩보영화를 찍는 것 같았다. 중국에서 접촉이 허용되지 않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만나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러웠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과 우리가 만나는 북한이탈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전략들을 사용하였다. 우리는 전화도청을 조심하여 주로 추적기 어려운 외부 공간의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그들에게 연락을 하였다. 그들과 만나는 시간은 때때로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밤을 이용

하였고, 그들의 집이나 안전한 제 3의 장소에서 만났다. 그들을 만나러 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에 외국인으로 보이지 않도록 의상 등에 신경을 썼다. 또한 그들을 만나러 가거나 돌아올 때는 누군가 우리를 쳐다보는 사람이 없는지를 주변을 둘러보며 항상 확인해야 했다. 한 여성의 집을 방문했을 때는 밖에서 자물쇠로 문을 잠가 마치 집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가장하였고, 누군가 문을 두드릴 때는 우리 자신도 놀라서 긴장하는 경험을 하였다.

그들과의 만남은 처음에는 다소 경직되었다. 북한이탈여성들도 우리와의 첫 만남에 대해서 긴장하는 것으로 보였다. 우리의 방문에 대해서 예민하게 궁금해 하였고 경계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예의를 갖추어 앉아 묻는 질문에만 대답을 짧게 하거나, 불필요한 반복어를 많이 사용하거나, 말이 늘어지는 여성들도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만남의 횟수가 많아짐에 따라 그들을 편하게 대할 수 있었고 그들의 생활세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그에 대한 편견을 줄일 수 있었다. 그들이 더 이상 불쌍하거나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고 그들의 세계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그들의 생활체험을 통해서 체제가 개인의 삶의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들도 만남의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밝게 웃고 있었고, 어떤 여성은 “한번도 이런 얘기를 한 적 없습다. ... 솔직히 선생님께만 말씀드립니다... 선생님을 언니라고 생각하여(울음)”라는 말을 하며 자신의 경험들을 이야기하였다. 어떤 여성들은 이야기 중에 울기도 하였고, 또 다른 어떤 여성들은 이 연구에 등장하는 다른 여성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2) 관찰과 인터뷰(심층면접)

우리는 “한 사람의 일상세계에 들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세계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Van Manen(1997)의 말에 따라 북한이탈여성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자 하였다. 1:1 인터뷰 외에 한 정보 제공자를 따라 북한이탈여성들의 비공식적 모임에

관찰자이자 참여자로서 참여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인터뷰와 모임에서 관찰한 부분들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고,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뷰를 통해 물었다.

인터뷰는 우리가 그들과 서로 관계하는 것을 배우는 기회로 갖춰갔다. 우리 사이의 차이는 삶에 주어진 기회들의 차이로서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들이 가치를 두는 것들을 존중하여 듣고자 하였다. 예를 들면,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북한 용어들을 들었을 때 곧 그들에게 무슨 뜻인지를 물었고 그들 용어대로 사용하였다. 인터뷰 중 우리의 중국에서의 체험들을 나누기도 하였다. 그들 문화를 존중하며 듣는 인터뷰 법은 질적 연구의 핵심인 그들과의 친밀한 관계(rapport)와 신뢰를 쌓는데 필수적인 기술이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술은 사적인 대화에 익숙치 않은 그들이 솔직하고 편안하게, 그리고 풍부한 자신의 경험을 나눌 수 있게 하기 때문이었다(박현선, 1999). 또한 친밀한 관계와 신뢰를 쌓는 것은 북한이탈여성들에게 우리가 믿고자 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는데 필수적이었다.

3) 학술연구, 편지, 신문기사 및 영상물 경험, 정보 제공자와의 대화

우리는 한 정보 제공자로부터 북한이탈여성들이 그들을 돕는 지원자에게 보낸 감사편지를 빌려 읽어볼 기회가 있었다. 또한 북한이탈자 연구들, 신문 보도 및 민간단체들의 실태보고, 그리고 방송을 통

한 재중 북한이탈자들의 생활실태를 보여준 영상물들은 북한이탈여성들의 경험과 상황적 맥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자들을 돕고 있는 정보 제공자들과의 대화는 북한이탈여성들이 중국으로 탈북하던 시기부터 최근 동향까지의 변화추이를 포함하여 우리가 그들의 삶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간접적 체험들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본 연구에서 채득한 체험들을 구성하여 반성할 때 해석학적 시도로 사용하였다.

2. 연구절차

1) 13인의 재중 북한이탈여성들

우리는 중국 A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총 13명의 20~30대 북한이탈여성들을 만날 수 있었다. 13명의 여성들의 탈북시기는 대부분이 1997~1999년 이어서 중국 체류기간은 3~5년 정도이었지만, 1명의 여성은 1년 미만이었다. 그 1명을 제외한 12명의 여성들이 중국에 와서 결혼을 하였고, 그중 10명은 중국 현지인과, 2명은 같은 처지의 북한이탈남성과 결혼

- 3) 북한이탈여성들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최대한 그들의 신분을 추적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사회인 구학적 특성을 밝힌다.
- 4) 2회 탈북한 여성들은 모두 첫 번째 탈북후 재입북시 중국공안이나 북한 국경수비대에 붙잡혀 구류되어 최고 3년까지 감옥살이를 한 경험이 있었다고 한다.

<표 1> 북한이탈여성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³⁾

#	SES	가족사항 탈북시기/ 탈북횟수 ⁴⁾	탈북동기/	인신매매경험	결혼경력	결혼유형
1	29, ?. 농사, 한족과 6개월 산적 있음	부모사망, 모자살, 언니, 동생	먹기 위해 /1997, 2000 /2회	무	한족50대와 6개월 삶	북한이탈자(북 에 부인과 아이) ²⁾ 오다가다 만남
2	30대, 중등, 장사, 이혼	아들, 이혼 부모(공산당퇴직)	돈벌기 위해/2001/ 2회	무	북에서 이혼 (남편의 바람, 경제적 무능력)	북한이탈자 오다가다 만남
3	29, 대졸, 비서.	부모(공산당), 여유 있었음	애인 따라서/ 1999/1회	현재 남편	무	한족남편(농민) 인신매매

〈표 1〉 계속

#	SES	가족사항 탈북시기/ 탈북횟수 ⁴⁾	탈북동기/	인신매매경험	결혼경력	결혼유형
4	24, 중등, 꽃제비	모사망, 부행방불명, 남동생, 조모	돈벌기 위해/1998/ 2회	팔리려는 순간 구조됨	무	한족남편(농민) -이혼 주위의 소개
5	29, 고중, 전강	모장기환자, 부, 형제 많음, 장사	돈벌기 위해/1997/ 여러번	팔려갔다 도망침	무	조선족(무) 연애혼
6	29, 고중, 탄광기쁨조	모사망, 가족홀어짐	임무, 돈도 벌/1997/ 1회	팔려갔다 도망침	무	조선족(농민) 시대친척이 소개
7	31, 고중, 탄광	부(중국에서 새장가), 모, 오빠	친척에게서 돈 얻으려 /1997/1회	무	무	조선족(농민) 친척소개
8	34, 대졸, 교원, 이혼	부모사망, 언니, 남동 생, 엘리트집안	결혼/ 1997/1회	현재 남편	북에서 이혼 (아이를 낳지 못해서)	조선족(농민) 북에서 팔려옴
9	37, 고중, 주부	남편과 아들 2 두고 나옴	돈 벌기 위해/1998/ 1회	무	북에 남편 있음, 중국 결혼(아기1)	조선족(농민) 부인4 달아남 주위 소개
10	35, 대졸, 장사, 평양	남편과 이혼, 아들, 부모, 여/남동생, 장사	친척 도움으로 사업/1999, 2001/2회	무	북에서 이혼(남편의 바람, 경제적무능력)	무
11	29, 대졸, 기쁨조	부모(공산당)	결혼/1997/ 1회	무	무	조선족 전도원 친척소개
12	20대, 장사	모	애인 따라서 /1997/1회	무	무	조선족 연애혼
13	20대, 농사	?	돈 벌기 위해/ ?, 1997/2회	팔리려다 구조	무	조선족 연애혼

하였다. 결혼하지 않은 1명은 탈북한지 1년이 채 안된 이혼여성으로서 아직까지 중국에서의 결혼을 원치 않았다. 그들의 교육수준은 중,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많았지만, 그중 4명은 대학을 졸업한 인텔리층이었다. 13명의 북한이탈여성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인터뷰(심층면접) 절차

우리는 2001년 3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중국 내 북한이탈여성들 13명을 1회에서 최대 4회까지 만나

인터뷰(심층면접)를 하였다. 1회만 만난 여성들은 3명 있었는데, 첫 번째 인터뷰 후 북한이탈자에 대한 단속이 심해져서 혹은 남편을 떠나려고 도망 나왔다가 다시 남편에게로 되돌아가서 다른 지역들로 흩어졌기 때문이다. 그들과의 만남은 주로 1:1로 이루어졌다. 면접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최고 6시간까지 걸렸다.

그들과의 인터뷰 내용은 모두 녹음되었는데, 그들은 녹음에 대하여 대단히 꺼려하는 편이었지만 이를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형성(rapport)을 통해서 극

복해갔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그들이 여성으로서 필요로 할 것들(예 : 여성용 위생용품, 의류, 세제, 아기용품 등) 및 수단적 지원(예 : 병원알선 및 병원비에 대한 재정적 보탬, 약 제공, 학습교재 제공 등)을 주었다. 개별 여성들에게는 인터뷰를 마치면서 중국농촌에서 한 달을 살 수 있는 정도의 금전적 사례를 하였다. 한편 도움을 받은 여성들은 감사의 표현으로 농사 지은 옥수수를 갖다 주기도 하였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 관계하는 방법이었으며, 우리가 그들과 인터뷰를 수행하는 방법이었다. 이와 같은 관계는 서로에 대해 좀더 개방할 수 있는 대화거리를 만들 수 있었고 친밀감을 형성하는 기회가 되어, 그들이 중국이라는 새로운 세계에서 무엇을 경험하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로 넓혀갔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질문들은 연구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대략적인 몇가지 5)를 구성하였지만 주로 대화식으로 이루어졌고, 그들의 응답에 근거해서 질문과 대화를 계속하였다.

3) 주제분석

13명의 북한이탈여성들의 생활체험은 반성적 과제로서 텍스트를 만들었다(Van Manen, 1997). 텍스트를 만들기 위하여 13명의 북한이탈여성들과의 인터뷰를 녹음한 것과 메모를 전부 그대로 녹취하였다. 우리는 “중국내 북한이탈여성들의 생존전략의 의미”를 스스로에게 물으며 13개의 텍스트를 계속해서 읽어가며 텍스트와의 대화를 진행하였다. 텍스트를 읽으면서 의미단위와 경험들을 구조화하여 주제를 찾아갔다. 우리는 13개의 텍스트에서 보여주는 의미단위와 경험들에서 가장 공통적인 것들을 구조화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되어진 주제들은 13명의 여성들의 정확한 경험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그들로부터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서, 그리고 국외 북한이탈자에 대한 선행연구나 보도물, 정보제공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주제에 대한 타당성을 얻었다.

4) 부분과 전체의 균형 유지하기

우리는 주어진 맥락에서 각 부분이 전체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뒤로 물리셔서 전체를 바라봄으로써” 부분과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Van Manen, 1997). 이를 위하여 우리는 작성된 녹취문을 계속 읽고, 테이프를 듣고, 텍스트 메모를 읽음으로써 전체 흐름에서 초점을 잃지 않는데 도움이 되었다.

IV. 연구결과

1. 중국여자로 위장하기

불법체류자로 산다는 것은 최대한 자신의 원래의 모습을 감추고 현지 체류국에 어울리게 자신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필요로 한다. 가령 외모를 현지인처럼 보이기 위해서 화장법을 바꾸거나 현지 언어를 습득하고 현지인과 같은 생활습관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 우리가 만난 여성들도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외모, 말투고치기, 그리고 한어를 배우는데 많은 신경을 썼다. 도시에 사는 5명의 옷차림은 당시 중국에서 유행하는 옷차림으로서 몸에 달라 붙는 스타일 이거나 짧은 스커트를 입고 있었으며 굽 높은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 옷차림의 취향은 북한에서와 많이 다르다고 하였다. 그중 직장을 다니는 2명은 핸드폰이나 삐삐를 갖고 다니면서 연락을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농촌에 사는 여성들은 옷에 대하여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농촌여성처럼 보일 수 있었다. 한족과 결혼하여 한족마을에서 살고 있는 한 여성은 달랑거리는 큰 금귀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전형적인 한족처럼 보였다.

언어 면에서도 중국 조선족처럼 보이기 위하여 그들은 한어와 조선어 어투를 새롭게 배워야 했다. 그들은 조선족들을 세심하게 관찰하며 말투를 고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말 중에 한어를 섞어 쓰거나 한어를 조선말로 그대로 번역한 단어들을 사용하였

5) 중국생활에 대한 경험들을 묻는 질문들로서, 어떻게 중국생활에 적응해가고 있고 적응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물었다.

다. 예를 들면, '로반(사장), 따소포(검문), 판공실(사무실), 버스짤(정거장), 펜디(링겔), 뎀스(TV), 쌍밭/샤밭(출근/퇴근)' 등은 조선족들이 조선어 문장 속에 자주 섞어 쓰는 한어 단어들이다. 그들은 조선어 말투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신경 써서 고쳐왔기 때문에 현재는 말투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하였다.

북한이탈여성들이 한어(漢語)를 배우는 것은 신분을 위장하는데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대부분의 한어 표현력은 중국여성으로 위장하기에는 부족하였다. 그들이 한어를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 환경 때문이라고 한다. 한족이 집거하는 지역에서 한족과 어울려 살면서 개인적으로 한어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야만 한어실력이 향상될 수 있는데 그들 대부분이 거주하는 지역은 조선족 집거지역이기 때문에, 남편이 한어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신분위협에 늘 예민해 있기 때문에 한어공부에 신경을 쓸 마음의 여유가 없다. 따라서 그들은 조선족만 모여 사는 산골에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채 성장한 조선족 여성처럼 행세하였다.

그들이 중국에서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방법은 호구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들은 불법신분으로 중국에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가짜호구를 만들어야 하고, 가짜호구를 만드는데 최소한 인민폐 5천~6천원(한국돈 800,000~1,000,000원 정도) 정도가 필요하다. 그들에게 그만큼 돈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돈으로 대부분이 호구를 희망하지만 얻을 수 없는 현실이다. 그들이 호구를 얻지 못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와 더불어 호구를 마련해줄 신뢰하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2명의 여성들(#4, #11)이 중국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기를 낳으면서 시집에서 혹은 알고 지내던 한국 사람의 도움으로 호구를 마련하였다. 호구를 마련한다는 것은 중국에서 형성한 가족들이 그들의 관계를 인정하고 안정되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였다.

"자기두(남편) 먹고 살아가려면 내가 (호구가 있어야)... 마음적으로는 안정되게 잘 수 있는게지."
(#4)

외모나 언어습득, 가짜 호구를 장만함으로써 자신을 중국여자처럼 보이는 것은 신분안전을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조선여자가이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수모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여자로 위장해야만 하였다.

"내가 북한인인줄 모르고 그래서 자기가 같은 동무라고 친했는데 내가 북한 여잔 거 알았을 때, 중국 여자는 은근히 그담부터 '너, 일 하나래두 더 해라.' 이런 식으루 불리하지요, 마이. 그거는 뭐 이렇게 부모님 같은 분들은 자기 딸처럼 생각되고 '우리도 뭐 북한 어디 친척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안 그래요. 그렇지만 대체로 이렇게 식당에서랑 일하는 여자들(이) 그러니까나 '너희 나라 잘못 만나서 너희 불쌍하다' 이런 식으로 리해하는 거 아니라, '너희 못 살아서 너희 왔다' 이런 식으로 (떨시해요). 또 예를 든다면, 기래두 여기서 기대되는게 한국을 다 기대해요. '한국 가고프다.' 이렇게 말이 나오무 중국여자들이 '너희, 한국 어떻게 가니? 우리두 한국 가기 힘든데, 너희 따위들이 어떻게 가니?' 이런 식으로 나와요."(#10)

이와 같이 그들은 중국에 어울리도록 외형적으로 동화함으로써 살아남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동화는 부분적으로만 안전문제를 해결해줄 뿐 완전한 전략은 아니다. 많은 돈을 지불하고 호구문제를 해결하였고 한족 남편과 한족 마을에서 살면서 한어 방언까지 쓸 수 있을 정도로 유창한 한어 실력을 보이는 여성(#4)도 신분증 검문이 강화되거나 고발을 당할 때는 신분이 드러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1년 넘게 있어온 따소포(大收 : 불법 신분자 검문기간) 기간 동안 우리가 만난 여성들은 집에 숨어서 나오지 않는다든지, 갖고 다니는 핸드폰을 꺼놓고 있다든지, 혹은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산 속으로 혹은 중국 내륙으로 숨어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2. 감정 드러내지 않기 : 조선여자임을 인정하고 참고 살기

본 연구의 여성들은 중국이라는 남의 땅에서 불법체류자로 살기 때문에 마음껏 자기 의견을 내세

우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인정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 그들은 안전을 위해서 억울한 상황에서조차 자신을 죽이고 '참는 것'이 생존에 필수적이다. 그들은 못 사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와서 불법으로 살기 때문에 조용히 지내야 함을 인정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상황에 처한 자신을 '자존심을 내세우지 못한다'고 표현하였다.

"나는 조선여자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못 살지 않습니까? 못 살기로 해서 굶어서 못 살고 살기 바빠서 남의 나라 땅에 왔다. 근까 너네보다 나는 어째든 차하고 또 내가 이런 차한테서 너네는 나를 이케 업사볼 수도 있다. 나는 업신당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내 형편이 여기 비법분자길래, 와서 어디 가서 말할 형편두 못하고 항상 조용하게만 살아야 된다. 이것두 승인해야 한단 말입니다."(#11)

"남한테 밑에서 일한다는 거는 노예나 같지 않구 됩니까. ... 육해두 말두 못하구. ... 이 나라 이 땅에서 내 나라 내 땅이 아닌 이상 그거 맞하지 말아야지. 할 수 없단 말입니다. ... 시키는 일이라도 공손히 해서 좋게 조용히 해서 먹구 사는 정도면 된다. 거기서는 자존심 더는 말할 수 없지."(#2)

그들은 계속되는 중국인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자존심을 세우지 않고 참고 사는 것이 그들에게 최선임을 깨닫게 된다. 중국인 가족들조차 억울한 상황에서 그들 편이 되어주지 않고 걸핏하면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을 접하면서 그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불리함을 경험으로 알게 된다(김태현, 노치영, 2003). 그러나 자존심을 세우지 않고 자신을 억제하며 눈치껏 중국사람들을 맞추며 살다보면 본래의 자기를 잃어버린 껍데기처럼 느낄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강한 모멸감을 느끼기 때문에 붙잡혀 가더라도 기본대로 분풀이를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곤 한다. 그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전략으로서 그들을 얹잡아 보는 중국인을 학식이 부족하여 이해수준이 낮은 사람들로 규정하고 각별하게 상대하지 않는 등 무시하거나, 혹은 통일후나 한국에 가게 될 경우 중국에서 당한 멸시를 그대로 중국 사람들에게 되갚아주는 상상을 하곤 한다.

"너네 이 답에 두고 보자! ... 북과 남이 통일될 때는 이 중국두 마음대로 다닐 뻔다. 아깝까? ... 우리두 마음대로 그때는 (북한으로) 갈 수 있구. ... 그때 보자. 그저 계속 그런 생각 밖에 없단 말입니다. 지금두 계속 그런 생각합니다. ... 야, 정말 어떤 때는 억울해서 못 산단 말입니다."(#7)

그들의 중국현실은 마음껏 자기 감정을 드러낼 수 없다. 그들은 기본껏 감정을 표출할 때 당하게 될 신고와 북한송환, 그리고 신고하겠다는 협박과 같은 불이익에 민감하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서는 심리적 상상으로 감정을 해소하는 등 소극적 대처를 할 수 밖에 없다.

3. 결혼하기

현재 중국은 시장경제 도입과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호구통제를 완화하여 이전보다 인구가동이 자유로워졌다. 도시로의 인구이동은 농촌의 공동화 현상을 가져왔고, 남성에 비해 여성의 도시진출이 용이해지면서 농촌가정의 해체 및 농촌총각의 결혼문제 등이 심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중국 농촌의 결혼문제는 신변안전을 필요로 하는 북한이탈여성들에 의해 다소간 해소되고 있다.

본 연구의 여성들은 중국에서 편히 있을 장소가 없고 못 남성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서 결혼을 선택하였다. 그들은 탈북초기에는 결혼을 생각하지 않았지만, 중국에서 나름대로 살아보려는 시도들이 실패하면서 여자 혼자 살아가는 것이 어려움을 알게 되었다. 그들 주위에서도 북한이탈여성들의 실정을 알고 결혼을 권유하기 때문에 그들은 결혼을 생존전략으로서 선택한 것이다.

"우리라는 거는 신분증이 없으니까 립시 거주라는 거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거나 계속 이렇게 검사하니깐나 아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거나 (현재의 남편을 소개해준) 그 집에서두 속상하니까 거저 아이 되겠다구, 이제는 나그네르 하나 얻어서 안전한 데 가 살라구. ... 어쨌든 제 살구 봐야지. 남자 좋던 나쁘던 간에 뭐 살아야지, 그저 안전한데루 그저 나는 가자!' 그저 이거루 해서 온거지. 이기 안전하다까

나.”(#9)

안전을 목적으로 만나게 된 그들의 남편들은 중국에서 경제나 지식, 문화수준 등에서 부족한 사람들로서 중국여자와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이탈여성들을 아내로 맞는 부류에 해당하였다. 그들은 남편들이 그들보다 조건상 기울더라도 중국이 제 나라가 아니고 그들의 신분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의 부족한 조건들을 따져봤자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우리 거기서(북한에서) 대학을 졸업해두 여기(중국) 와서는 쓸데 없잖아요. 내가 거기서 제일 좋은 일류대학을 졸업했다 해두 여기 와서 그게 계속 빛이 날 수 없죠. 중국에서는 우리를 받아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뭐 그런 생각(좋은 조건을 가진 남성을 찾는 것)을 하게 안되더라고요. ... 신분두 안 되구 하나 할 수 없죠.”(#5)

그들은 결혼하는 전략을 통해서 신분안전을 보장 받으리라고 기대했지만 조건상 기우는 결혼을 함으로써 결혼생활에서 부딪치는 갈등들을 해결하는 어려움에 직면한다. 가장 큰 갈등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며 남편의 무능력을 대신해서 함께 돈을 벌고 싶지만 신분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이다(김태현 외, 2003). 뿐만 아니라, 부부갈등이 있을 때마다 남편이나 시댁은 그들을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 때문에 남편이나 시댁식구들을 가족이라고 충분히 인식할 만큼 안전하지 못하다.

4. 임신을 보류하기

중국에서 결혼한 북한이탈여성들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과의 원치 않는 결혼을 하였고 언제 불잡힐지 모르기 때문에 아기 낳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러한 전략은 연애결혼을 한 여성들(#5, #11, #12)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전략상 원하는 결혼을 하였고 결혼 몇 년간은 아기를 원했지만 경제력이 안되는 남편들이 임신을 거부해왔다. 그들은 결혼이 결코 안전장치가 되지 못함을 경험하면서 남편들이 아기를 원할지라도 아기 갖는 것을 보류하

고 있었다.

“제가 또 목표(한국 가는 것)가 있고 이러니까 자식을 낳고 싶은 생각이 없고 내가 또 그 자식을 낳아서 어떻게 키우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지금 저의 혼자 사는 것만해도 이렇게 힘든데 그 자식까지 있으면 그만큼 저희가 또 더 힘들지 않아요. 그러나 힘들게 노력해서두 키울 수 있다면 좋은데 힘들게 노력해서두 좀 잘 안되지 않아요. 내가 만일 그 자식이 있다가 그 정황이 어떻게 돼서 붙들려서 간다면 이렇게 되든 그 자식을 때놓고 가는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 않아요. 차라리 없으면 일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지금 낳고 싶은 생각이 없죠.”(#5)

북한이탈여성들은 헌신적인 모성성 이념을 내재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박현선, 1999; 김정미, 1998), 중국에서의 불안정한 결혼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아기에 대하여 책임감 있는 부모가 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아기 낳는 것을 통제하고 있었다.

5. 주위 사람을 경계하기

그들은 모두 신분이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가능한 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고 조용히 살고자 하였다.

“모든 일은 자기 혼자 비밀이다. 그 누구든 말하지 말구. 북조선 사람두 알 것두 없구. 나 자신부터두 그래야 자기만이 안전하고 자기만이 보호하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다 이짤다. ... 누구도 접촉하지 말구 다니지도 말고 우리집도 누구도 모르게 오직 일단 우리는 일자리를 얻고 내 먹고 내 살구 조용하게 이렇게 살자. 난 거저 이계 구호지. 그래야만이 이 땅에서 제가 영원히 살아두 안전히 살 수 있는 방법이지.”(#2)

그들은 특별히 같은 북한이탈자들과는 교류하지 않는 것이 신분상의 안전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이 잡히게 될 경우 표적수사망에 걸려 연쇄적으로 불잡히기 때문이다. 신분상의 안전 이외에도, 그들은 모두 중국인들과의 교류에서 북한이탈자라는 신분으로 인한 위축감을

느끼기 때문에 교류를 피하였다.

"내 자체가 조선에서 왔다는, 말하자면 자기절로 위축되는 이런 마음에서 남들하구 휩쓸리기 싫지도 않았고, 또 우리 시집이가 마을에서 조금 좀 차한 집이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나 왜서인지 다른 사람하구두 대상하구두 싫습데다. 별로 나도 같이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많이 자존심이 상하더라 말입니다. 그러구 또 중국의 조선족이나 우리 조선이나 같은 조선족이라 해두,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대해 결코 리해가 갈 수가 없다 이런 생각해볼 때 그 사람들하구 크게 대상하구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혹시 대상을 해두 자존심이 상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활기 못 띄구 항상 위축돼서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같은 또래 각시들과 앉아 얘기를 해봐두 확실히 우리쪽이 위축돼서 살아가는거는 많다 말입니다. 자존심이 상하니까나 대상하기 크게 싫어했습니다. 차라리 대상 안하면 그런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 될수록이면 피했습니다."(#6)

그들이 자존심이 상하여 위축감을 느끼는 것은 우월감을 유지하려는 욕구와 관계가 있다(독고순, 1999). 그들의 우월의식은 주로 또래와의 경쟁관계를 통해서 생활형편이나 다른 사람들도부터의 관심이나 주목을 받는 것을 비교함으로써 충족되는데, 그들의 신분과 경제 형편상 우월감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였다.

"나는 내하구 나이 같은 친구하고는 안 놀아요. 내하고 이상 뻔되는 사람하구 놀지. 가정생활에서두(결혼해서도) 어느 정도 그런 사람과 놀아요. ... 그 친구 사는 처지나 내 사는 처지나 똑 같은데 내가 친구의 가정에 대해서 알구 있고 친구 역시 나에게 대해서 잘 알구, 그걸 자꾸 숨기려 하구, 또 뭔가 자기절로 자기를 내보다 독특하게(우월하게) 보일려고 이러니까 그런 점이 내 맘에 안드니까 나는 그 친구와 안 사귀죠."(#5)

그들이 그들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과 상대하는 것이 좀더 편한 것은 그들이 나이 많음에 따른 위계질서를 인정할 수 있고, 또한 나이 많은 사람은 좀더 관대하게 어린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덜 경쟁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여성들은 주위 사람들과의 교류에 대

해 경계를 하고 있으며, 같은 처지의 또래의 북한이탈여성들보다는 나이 많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해주는 중국여성들에게 속마음을 어렵게 여는 정도로 교류를 하고 있었다. 교류범위가 좁고 자신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신뢰할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일을 결정해야 할 때는 의논의 대상이 없어서 혼자 고민하다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

6. 또 다른 탈출구를 찾기

본 연구의 여성들은 모두 낯선 사람들과 접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한편 낯선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들이 주로 기대하는 것은 직업을 구하거나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혹은 보다 안전을 더해주는 호구문제를 해결하거나 한국 가는 길을 알선해주는 것이었다. 일례로, 그들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지내 돈이 없어 낚서...'와 같은 넋두리를 반복하면서 간접적으로 접근해왔다. 일부 여성들은 막연하게 도움을 기다리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도움의 길을 모색하고 있었다(#1, #3, #4, #5, #6, #10). 그들은 오랫동안 고민 끝에 한국행 외에는 살 길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내 인생은 살아야 될게 아님니까? 그런데 이제 조선 나가서두 못 살구 그럼 중국에서두 못 살구 그럼 어떻게? 그래 한국 가면 우리를 보호해주재요? 우리를 어쨌든 한국 가든 우리가 조국과 같으로 한테 그 나라 선민으로, 공민으로 돼두, 자유롭게 살 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립시적인 관념이 있으니까 돈을 가지구 거저 없애구. 그래두 한국에 가든 자기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돈 조금 생계두 그거 어떻게 아껴 쓰구 생활에 보태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지금 생활은 정말 아무런 의식이라는 게 없이 그저 오직 먹구 살자 이런 생각밖에 없지무. ... 거기(북조선) 나가서 자식들이랑 먹이메 살고 싶은 심정 간절한데, 받아주지 않으니까. (북한으로) 가문(가면) 도(또) 뭐 캐고 들고 잡아넣고 이러니까 고향에 못 나가구 한국으로 밖에 가야될 길 밖에 없으니까. 한국은 특별히 잘 살구 좋아서 가겠다 이게

아니지. 좌우간 운명을 유지해야 하겠으니깐. 사람이 죽는다는 게 험치 않아요.”(#1)

그들이 한국행을 또 다른 삶의 희망으로 기대하는 것은 한국정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원수용 방침에 따라 희망자에 한하여 한국으로 이주하도록 도왔던 실제 성공사례들과 깊은 관계가 있다. 그들은 한국에 가면 같은 민족이 그들을 보호해주고 받아주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며 살 수 있는 곳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희망을 바라보며 그들은 만일 한국행을 시도했다가 실패할 경우에는 그들 자신뿐 아니라 복에 두고 온 가족들에게 그 여파가 미치기 때문에 죽을 각오까지 한다고 하였다.

“내가 한국 가기 위해서 하다 못해 독약을 옆에다 차던가 ... 그게 실패하는 경우 차라리 북한에 끌려가기보다 독약 먹구 죽는 게 낫겠죠. 그 정도까지 한국 가자면 그 정도 각오까지 가져야 돼요. 그 정도가 아니면 한국 못 가요. 괜히 실패하는 날이면 그 답에는 무서운, 가족이 다 누워나구 참극이 차려지니까나 그래요. 그래 한국 가자면 그게 마음의 준비가 영 간단치 않아요.”(#10)

한국행을 결심한 여성들은 그 다음 단계로서 한국까지의 경로를 마련해줄 전문 브로커나 민간단체 관계자들을 소개받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 한 여성은 북한이탈자 남편과 함께 제 3국을 통과하는 경로에 대하여 정보를 모아 연구한 후 실제로 중국 남쪽의 군명을 거쳐서 국경을 넘는 계획을 실행했으나 국경 근처까지 가서 돈이 떨어지고 연구가 부족하여 다시 되돌아온 경험이 있었다(#1). 그러나 그들이 한국행을 모색하더라도 중국에서 그들이 살 수 있게끔 허용만 해준다면 중국에 머물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그들은 중국에 있으면서 앞으로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내왕할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한국으로 가면 그 가능성이 희박해지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한국행을 결심하지 않은 나머지 여성들은 달리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으로 남북한 통일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들은 한국행을 결심한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경제력을 들은 바 있어서

통일이 되면 한국이 북한을 도와주고 북한주민들의 지력으로 중국만큼 잘 살게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우리는 13명의 재중 북한이탈여성들의 생활체험을 통해 그들이 신변안전뿐 아니라 북한이탈여성이라는 지위로부터 받는 멸시감과 심리적 위축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공감할 수 있었다. 그들은 소수의 불법체류자로서 지배문화로부터 신변의 위기감과 심리적인 위축감을 느끼기 때문에 외모와 언어를 바꾸고 불법으로 호구를 만드는 등 중국여자처럼 보이기 위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들은 신변상 보호받기 위하여 원치 않는 결혼을 선택하였지만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아기 갖는 것을 보류함으로써 중국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지 않으려고 하였다. 대인관계 면에서 그들은 주위 사람들과 가급적 교류하지 않고 조용히 살며, 부딪침으로써 발생하는 불리함을 피하려 하였다. 또한 그들은 그들이 선택한 생존전략들이 안전한 방법들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었고, 그중 하나가 한국행 입국을 시도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들의 생활체험을 통해서 중국에서의 고된 삶을 이해할 수 있었고 남북한 사회통합을 기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가려진 소수집단의 삶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몇 가지를 제언해 본다.

첫째, 지금까지 재중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현재 중국을 경유한 한국 입국 희망 북한이탈여성들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국외에서 국내로 이어지는 연쇄적 입국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중 북한이탈여성들의 삶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그들의 생존전략과 관련하여 불법체류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그들의 전략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종단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한국 입국과정을 설명하는데 주

요한 변수로도 작용할 것이다.

둘째, 재중 북한이탈여성들이 보여준 생존전략들은 그들이 불법신분이기 때문에 욕구를 자유롭게 표출하지 못하는 가운데 나름대로 안전을 유지하려는 방편들이었다. 그들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많은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개인적 민간차원의 사회적 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충분치 않은데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북한이탈자에 대해 불법체류자로 정의하여 이와 관련한 도움들까지도 불법으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북한이탈자들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인도적인 처리로서 그들이 보다 많은 안전감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난민지위 부여에 결정권을 갖고 있는 중국에게 북한과의 정치적 관계보다 우선하는 명분을 만들어 주는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교섭 및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재중 북한이탈여성들이 선택한 생존전략 중 하나가 한국에 대한 희망 섞인 기대였다. 그들에게는 한국이 유일한 희망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한국 사회에 정착해서 부적응을 보이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박철학, 2001; 김영수, 2000; 이우영, 2000; 전우택, 2000; 윤인진, 2000, 1999; 장혜경, 김영란, 2000), 만족할 만한 삶의 전략이 못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들의 기대가 현실과 괴리가 있기 때문이지만, 동시에 한국 사회가 통일을 위한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저변 확대가 필요한데, 통일교육에는 중국을 비롯한 국외 북한이탈자의 삶과 기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그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본 연구는 현지 체류국에서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접근의 한계성 때문에 정보 제공자를 통해서 만나게 된 여성들이라는 표집의 한계점을 갖고 있다. 지속적인 학술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지조사의 어려움을 해소해야만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의 안전기반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끝으로, 탈북현상은 북한사회구조의 변화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지속될 것이므로, 보다 근본적으로 정부의 통일정책과 사회통합정책들

이 국내외 탈북문제를 포괄하여 장기적인 시각에서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의지를 갖고 추진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 참고문헌

- 곽해룡(2000). 중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인권실태에 관한 연구: 신이산가족 현상의 발생을 중심으로, 통일문제 연구, 12(1), 247-267.
- 김영수(2000). 북한이탈주민의 가족문제.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 9, 102-117.
- 김정미(1998). 탈북여성의 정체성 변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태천(2002). 대량 난민사태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http://www.humanrights.or.kr>.
- 김태현, 노치영(2003). 재중 북한이탈여성들의 삶, 서울: 하우.
- 노치영(2002). 생존전략으로써의 탈북과 가족해체 경험 -북한여성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인간생활환경연구소 논집, 1, 95-118.
- 독고순(1999).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의 탈북 주민 적응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숙재, 김지희(1999). 북한 여성들의 탈북동기와 생활실태 - 중국 연변지역의 탈북 여성들을 중심으로 -, 아시아재단 보고서.
- 박철학(2001). 자유북한인/가족의 사회부적응 실태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선(1999). 현대 북한의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윤여상(1998). 재외 탈북자 실태와 지원체계, 통일연구논총, 7(2), 169-201.
- 윤인진(2000). 탈북자와 남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까?-탈북자의 성공적인 사회적응을 위한 방안, 한국사회문화연구원 공개토론회 남 북한 사람들이 하나 되는 길, 서울 프레스 센터.
- 윤인진(1999). 통일을 대비한 북한 이탈동포 대책, 북한이탈동포 대책 공청회 발표 자료.

- 이신화(1997). 환경난민이란 무엇인가?: 대량탈북 위기에의 조기경보. 한국 국제정치학회 연례 학술회의 발표논문.
- 이우영(2000). 북한이탈주민 문제의 종합적 정책방안 연구. 통일 연구원.
- 장혜경, 김영란(2000).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가족 안정성 및 사회 적응과 여성의 역할.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 전우택(2000). 사람의 통일을 향하여 - 이질화된 남북한 사람들의 심리적 통합을 위한 사회정신의학 적 고찰. 서울 : 도서출판 오름.
- 좋은 벗들(2000). 2000년 8월의 조선-중국 국경지역 난민보고서. www.jungto.org.
- 좋은 벗들(1999). 99년 3월 국경지역 난민보고서. www.jungto.org.
- Edwards, R. & Ribbens, J.(1991). Meanderings Around 'Strategy' : A Research Note on Strategic Discourse in the Lives of Women, *Sociology*, 25(3), 477-490.
- Van Manen(1997).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NY :SUNY Press.
-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1997). North Korea's Decline and China's Strategic Dilemmas, www.usip.org.
- Yoon, I.(2000). North Korean Diaspora : North Korean Defectors Abroad and in South Korea, *Development and Society*, 30(1), 1-26.

(2003년 6월 30일 접수, 2003년 11월 15일 채택)